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으로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 선임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
(왼쪽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으로 뉴욕에서 기획자이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 선임
- 비엔날레 역사상 두 번째로 국제 공모를 통해 예술감독 모집, 1차 서류 및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총 66건의 제안서를 검토
- 서울의 문화적이고 지정학적인 맥락의 연장에서 비엔날레의 역사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기술 지배적인 미디어 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 제안서 최종 선정
- 신비주의, 오컬트, 애니메이션처럼 오래된 미학적 주제를 통해 동시대의 AI, 가상현실 등 지배적인 현상을 고찰하고, 미디어 환경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확장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비엔날레의 상상력을 제시, 2025년 8월 개막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2025년 8월 개최하는 제13회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 할리 에어스(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를 선정했다.
-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는 지난 27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비엔날레 역사상 두 번째로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제 공모의 심사는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계 각지의 동시대 미술기획자들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는 총 6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를 기록하였다.
 - 1차 서류 및 토론심사(24.8.4.~8.26.)에서 5명의 심사위원이 총 3명(팀)의 제안서를 먼저 선정했다.
 - 최종 제안서는 심층 면접과 토론으로 진행된 2차 심사(24.9.10)를 통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임근혜 아르코미술관 관장 등)와 내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동진 교수는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팀의 제안서는 현대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후기식민주의, 기술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신비주의와 애니미즘의 미학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기도 했으나, 문화적 상상력이 빈약한 동시대를 성찰하는 시학으로서 의미를 기대한다.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염두하고,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과 교차하는 방식을 고려하며, 우리의 안과 밖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심사를 총평했다.
- 내년 개최되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동시대 유수의 비엔날레가 드러내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강령’의 역할로서 인간 세계 너머로 얽혀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비엔날레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질과 비물질적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예술 작품을 탐구하고 선보일 예정이다.
 - 이러한 생각은 페미니즘, 선주민 투쟁, 반자본주의, 후기식민주의 등 세계 곳곳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동시대 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풍부한 신앙 체계, 종교 관습과 민속 전통이 존재하는 한반도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적합한 장소이며, 영성과 기술이 공존하는 현대도시로서 서울은 변증법적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 안톤 비도클(Anton Vidokle)은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며 『이플럭스(e-flux)』(뉴욕, 1998-현재)의 창립자이다. 광주비엔날레에 두 번 참여하며 2016년 ‘눈 예술상’을 수상했고,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개최된 여러 전시, 강연,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할리 에어스(Hallie Ayres)는 큐레이터, 연구자, 미술사학자로, 영적 믿음을 바탕으로 선주민과 서구 사회의 지식 생산 체계의 화합에 관한 글을 출판하고 강연한 바 있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Lukas Brasiskis)는 아티스트 필름과 실험 영화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이자 필름 큐레이터이다. 인간 너머의 관점을 제시하는 매개로서 무빙 이미지의 한계와 잠재력을 탐구하는 기획과 저술 활동은 2020년 출판된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위기를 생각하는 미술』 등 여러 자리에서 소개된 바 있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동시대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경험을 가진 예술감독팀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13회 비엔날레에서는 변화하는 서울과 미디어 환경에 관하여 실험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요 개념, 세부 내용과 참여작가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https://www.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대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s://sema.seoul.go.kr/>

엑스(트위터) [x.com/SeoulSema](https://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붙임 1)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 할리 에어스 (Hallie Ayres, b. 1995), 안톤 비도클 (Anton Vidokle, b. 1965),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Lukas Brasiskis, b. 1982). (왼쪽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붙임 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7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동시대의 긴급한 사안들을 주목하는 기획으로 에디션마다 평균 50여 명/팀의 작가를 초청하였고, 140,000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중심으로 도시 내의 여러 장소를 경유하며 개최되는 전시, 유무형의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출판물은 삶과 경험의 사용자이자 참여자로서 다양한 관객을 초대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매해 비엔날레 전시 주제와 공명하는 출판작을 선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점의 비엔날레 출판작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비엔날레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미디어아트 형태, 경향, 개념을 기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단계별로 선별·수집하여 디지털로 전환한 지난 비엔날레의 주요 데이터는 내년에 오픈하는 통합 웹사이트에서 공공 자산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준비연도에 개최되는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은 비엔날레의 소장 자원을 바탕으로 미디어에 관한 개념적 연구,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지역적 연계성을 탐구하며, 본행사의 바탕이 되는 생각과 경험을 축적합니다. 전시, 출판, 스크리닝, 심포지엄,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프로그램에서 비엔날레의 기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동시대적 실험과 사유를 위한 미적 참여, 생산과 매개의 미디어가 됩니다.

기본 정보

- 사업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문의: 고객홍보과장문철오(02-2124-8912/leomoon1@seoul.go.kr)
주무관 권대희(02-2124-8945 / kwon.daehee@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주소: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선임] 폴더